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 연구

이은정¹, 강영식², 박정환^{3*}

¹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²충남대학교 유아교육과, ³제주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Pre-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Eun-Jeong Lee¹, Yung-Sik Kang² and Jung-Hwan Park^{3*}

¹Dept. of Faculty of Human Ecology &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³Dep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J시 소재 J대학교에 재학 중인 23세의 미혼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2011.10.4~7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양육', '부모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나 핵가족 및 확대가족인 경우,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및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나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에 대해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20~30대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긍정적이고, 편부모가족에 비해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갈수록 축소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 예비부모에 대한 성장환경에 따라 부모역할과 자녀관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arried out on 200 23-year old unmarried men and women attending j university in j city from October 4 to October 7, 2011 to figure out pre-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and put forward the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re-parent educa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general parenting and parental role showed that 'parenting' is the highest, following by 'parental role'. For women, nuclear families and large families, who feel much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in the academic liberal arts, the perception of general parenting, parental role and parenting by sub-factors was positive. Second, the perception of general view of children showed that 'children plan' is the highest, followed by 'pregnancy and birth.' For those surveyed, who have a plan for marriage and children plan or feel much necessity of pre-parent education in the academic liberal arts, the perception of general view of children, children plan by sub-factors, and pregnancy and birth was relatively positive. As for findings stated above, for pre-parents in their 20s~30s, wom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was more positive than men'. And nuclear families' or large families' perception was more positive than single parent families'. These findings confirm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according to growth environments of pre-parents in social realities that the low birth rate is growing.

Key Words : Pre-parents, Parental Role, View of Children, Perception, Pre-parents'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

Tel : +82-10-9843-2620 e-mail : edu114@jejunu.ac.kr

접수일 12년 01월 11일

수정일 (1차 12년 02월 09일, 2차 12년 03월 13일)

게재확정일 12년 04월 12일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핵가족화 됨에 따라 예비부모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아동 발달이나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에 대해 확대가족에 비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확대가족의 축소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역할과 자녀양육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 등의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1,2].

이와 같은 일련의 현실을 볼 때 대학생 예비부모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경우와 사전 충분한 예비교육을 받은 부모 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현실생활에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 시대의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념은 민주적이나, 실제로는 권위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라서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대항하기 위해 민주적인 부모와 결탁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녀들은 민주형으로 양육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양육방법도 사랑으로 조용히 타일러 주거나 엄격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4,5].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자녀양육에 관한 가치관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초반의 의사소통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가 자녀교육과정에서 겪는 역할수행상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 준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현재의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습득한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태도는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7,8].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은 학교 이외의 여성단체나 아동상담소,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취급함으로써 다양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왔다[1]. 이로 인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까지 진행된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선행연구를 보면, 예비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들로 대학생이 또는 미혼 남·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투입, 적용연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5,9-11]. 또한 대상선정이 국한되어 프로그램 내용선정에 대한 양육,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연구한 것이 부족하다.

이들 대표적 연구를 보면 고선주 외[13]는 예비부모교육 유형을 부모훈련, 부모참여, 부모개입, 부모지지, 부모역할하기로 범주화하였으며, 강희은[14], 정은숙[15]은 예비부모교육이 성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을 달리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수주[11], 허희순[5]은 자녀계획과 임신·출산에 치중되어 있고, 김지신 외[10], 허희순[5], 신영희·김갑숙[16]은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렇듯 기수행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될 부모역할, 양육태도, 자녀계획, 임신·출산 등과 자녀관을 하나로 통합시켜 연구한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예비부모교육이 자녀 발달에 따른 바람직한 부모역할만을 강조하고 있고, 예비부모교육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의 부모역할은 단순히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 출산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관심도가 높고, 지식수준 또한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개별교육에서 벗어나 이들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계획, 임신출산 등의 예비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자녀관에 대한 인식수준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방법

2.1.1 조사대상

본 조사대상은 J시 소재 J대학교에 재학 중인 23세의 미혼 남·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 52명(26.7%), 여성 143명(73.3%)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핵가족 146명(74.9%), 확대가족 27명(13.8%), 편부모 가족 18명(9.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계획은 168명(86.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계획은 174명(89.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

비부모 교육 필요성은 필요 177명(90.8%), 보통 11명(5.6%), 불필요 7명(3.6%)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 구분 |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성 | 52 | 26.7 |
| | 여성 | 143 | 73.3 |
| 가족형태 | 핵가족 | 146 | 74.9 |
| | 확대가족 | 27 | 13.8 |
| | 편부모가족 | 18 | 9.2 |
| | 기타 | 4 | 2.1 |
| 결혼계획 | 계획 유 | 168 | 86.2 |
| | 계획 무 | 27 | 13.8 |
| 자녀계획 | 계획 유 | 174 | 89.2 |
| | 계획 무 | 21 | 10.8 |
|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 불필요 | 7 | 3.6 |
| | 보통 | 11 | 5.6 |
| | 필요 | 177 | 90.8 |
| 합계 | | 195 | 100.0 |

2.1.2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교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설문응답은 사전 고지를 통해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지를 통해 직접 기입토록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였다.

2.2 측정변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가설에 사용된 변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각 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하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항목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뜻한다.

2.2.1 양육 및 부모역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양육과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안진·신양재[17]의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은숙[15]의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양육과 부모역할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 양육 문항은 ‘자녀에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대화상대가 되어준다.’, 부모역할은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상, 남성상의 모델이 되어준다.’를 들 수 있다.

2.2.2 자녀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자녀계획 및 임신과 출산에 관한 허희순[5]과 우수주[11]의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녀계획과 임신/출산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예로 자녀계획 문항은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임신과 출산 문항은 ‘임산부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를 들 수 있다.

2.2.3 인구통계학적 요인

본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해 허희순[5]과 정은숙[15]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가족형태, 결혼계획, 자녀계획,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등의 항목에 따라 측정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변수를 반영하여 명목적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역
[Table 2] Components of Questionnaire

| 요인 | 항목 | 문항 번호 | 문항 수 | 척도 | 출처 |
|-----------|--|-------|------|-----------|----------------------|
| 양육 및 부모역할 | · 양육 · 부모역할 | 1-20 | 20 | Likert 5점 | 유안진·신양재[17], 정은숙[15] |
| 자녀관 | · 자녀계획 · 임신/출산 | 1-20 | 20 | Likert 5점 | 허희순[5], 우수주[11] |
| 인구통계학적 요인 | · 성별 · 가족형태 · 결혼계획 · 자녀계획 · 교육 필요성 | 1-5 | 5 | 명목 척도 | 허희순[5], 정은숙[15] |
| 계 | | | 45 | | |

2.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예비부모 교육 요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예비부모 교육 요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0.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0.6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예비부모 교육 요구도,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신뢰도가 0.60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연구결과

[표 3]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Table 3] Reliability of Scale

| 구분 | 평가영역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양육 및 부모역할 | 양육 | 10 | .864 |
| | 부모역할 | 10 | .901 |
| 자녀관 | 자녀계획 | 10 | .668 |
| | 임신과 출산 | 10 | .754 |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부모의 양육 및 부모역할,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3.1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다음 표 4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양육'(M= 3.92), '부모역할'(M=3.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인 경우 편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이나 하위요인별 부모역할은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다소 높게

[표 4]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Table 4] Perception of Parenting and Parental Role

| 구분 | 양육 및 부모역할 | | | | 전체 | | |
|------------------------|------------|-------------------|-------|--------------------|-------|-------------------|-------|
| | 양육 | | 부모역할 | | | | |
| | M | SD | M | SD | M | SD | |
| 성별 | 남성 | 3.29 | 1.309 | 3.30 | 1.023 | 3.30 | .991 |
| | 여성 | 4.14 | .542 | 3.79 | .499 | 3.96 | .468 |
| | t-value(p) | -6.393***(.000) | | -4.414***(.000) | | -6.338***(.000) | |
| 가족형태 | 핵가족 | 4.01 ^b | .755 | 3.71 ^{bc} | .633 | 3.86 ^c | .562 |
| | 확대가족 | 4.11 ^b | .744 | 3.85 ^c | .412 | 3.98 ^c | .512 |
| | 편부모가족 | 3.17 ^a | 1.512 | 3.22 ^b | 1.149 | 3.19 ^b | 1.320 |
| | 기타 | 2.60 ^a | .712 | 2.28 ^a | .236 | 2.44 ^a | .433 |
| | F-value(p) | 8.846***(.000) | | 9.441***(.000) | | 11.848***(.000) | |
| 결혼계획 | 계획 유 | 3.90 | .908 | 3.68 | .719 | 3.79 | .715 |
| | 계획 무 | 3.98 | .851 | 3.52 | .643 | 3.75 | .699 |
| | t-value(p) | -.411(.682) | | 1.067(.287) | | .271(.786) | |
| 자녀계획 | 계획 유 | 3.91 | .899 | 3.69 | .715 | 3.80 | .712 |
| | 계획 무 | 3.94 | .913 | 3.41 | .625 | 3.68 | .712 |
| | t-value(p) | -.148(.883) | | 1.703(.090) | | .751(.454) | |
|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 불필요 | 3.13 ^a | 1.343 | 3.29 | .847 | 3.21 ^a | 1.013 |
| | 보통 | 3.30 ^a | .903 | 3.38 | .513 | 3.34 ^a | .511 |
| | 필요 | 3.98 ^b | .854 | 3.69 | .710 | 3.84 ^b | .692 |
| | F-value(p) | 6.098**(.003) | | 1.987(.140) | | 5.137**(.007) | |
| 합계 | 3.92 | .898 | 3.66 | .710 | 3.79 | .711 | |

** p<.01, *** p<.001

Duncan : a<b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양육은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자녀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이나 하위요인별 부모역할은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양육은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자녀관에 대한 인식

다음 표 5는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계획’(M=3.85), ‘임신과 출산’(M=3.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자녀관이나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확대가족인 경우 핵가족이나 편부모가족에 비해 전반적인 자녀관이나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계획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서는

[표 5] 자녀관에 대한 인식
[Table 5] Perception of View of Children

| 구분 | | 자녀관 | | | | 전체 | |
|------------------------|------------|-----------------------------|------|---------------------------|------|-----------------------------|------|
| | | 자녀계획 | | 임신과 출산 | | | |
| | | M | SD | M | SD | M | SD |
| 성별 | 남성 | 3.86 | .605 | 3.62 | .658 | 3.74 | .538 |
| | 여성 | 3.85 | .395 | 3.55 | .430 | 3.70 | .322 |
| | t-value(p) | .195(.846) | | .845(.399) | | .656(.512) | |
| 가족형태 | 핵가족 | 3.83 | .416 | 3.55 | .486 | 3.69 | .365 |
| | 확대가족 | 3.94 | .523 | 3.64 | .460 | 3.79 | .420 |
| | 편부모가족 | 3.88 | .677 | 3.54 | .595 | 3.71 | .517 |
| | 기타 | 4.10 | .271 | 3.78 | .896 | 3.94 | .459 |
| | F-value(p) | .909(.438) | | .480(.697) | | .986(.401) | |
| 결혼계획 | 계획 유 | 3.88 | .449 | 3.59 | .505 | 3.73 | .382 |
| | 계획 무 | 3.66 | .477 | 3.44 | .457 | 3.55 | .407 |
| | t-value(p) | 2.391 [*] (.018) | | 1.395(.165) | | 2.307 [*] (.022) | |
| 자녀계획 | 계획 유 | 3.90 | .451 | 3.59 | .506 | 3.75 | .384 |
| | 계획 무 | 3.48 | .339 | 3.34 | .398 | 3.41 | .309 |
| | t-value(p) | 4.147 ^{***} (.000) | | 2.175 [*] (.031) | | 3.855 ^{***} (.000) | |
|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 | 불필요 | 3.34 ^a | .866 | 3.19 ^a | .590 | 3.26 ^a | .700 |
| | 보통 | 3.56 ^{ab} | .378 | 3.36 ^{ab} | .403 | 3.46 ^{ab} | .333 |
| | 필요 | 3.89 ^b | .426 | 3.59 ^b | .496 | 3.74 ^b | .363 |
| | F-value(p) | 7.612 ^{**} (.001) | | 3.245 [*] (.041) | | 7.871 ^{**} (.001) | |
| 합계 | | 3.85 | .459 | 3.57 | .500 | 3.71 | .390 |

* p<.05, ** p<.01, *** p<.001

Duncan : a<b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예비부모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양육’($M=3.92$), ‘부모역할’($M=3.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녀계획’($M=3.85$), ‘임신과 출산’($M=3.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자녀관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결혼계획에 따라서는 결혼계획이 있는 경우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성이 모성본능이 높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로서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요구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김지신 외[10], 허희순[5]의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즉, 인간발달과 관련한 자기인식, 가족발달과 관련한 부모역할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의 부모와 가정을 통해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개인 심리적 동기가 여성에게 더 높은 요구로 앞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통한 훈육과 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해야 한다는 모성애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된다.

반면 자녀 계획 및 임신·출산 등 자녀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있어 여성의 인식이 높다는 유수주[11]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계획 및 임신·출산 역할에서 핵심적인 여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남성들의 결혼 및 자녀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녀 계획 및 임신·출산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이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도 가족형태에 따라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인 경우 편부모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서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전반적인 양육 및 부모역할과 하위요인별 양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녀관에 있어서도 자녀계획에 따라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교양 과목에서 예비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서는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자녀관과 하위요인별 자녀계획,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내 예비부모로서 예비부모가 갖추어야 할 양육과 올바른 부모역할 및 자녀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예비부모로서 양육 및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문화에 맞는 예비부모교육의 정립과 제공이 요구된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양육과 부모역할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양성적인 가족문화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대학생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긍정적이고, 편부모가족에 비해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갈수록 확대가족이 축소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 예비부모의 성장환경에 따라 부모역할과 자녀관이 다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확대가족이 갈수록 감소되는 환경에서 핵가족이나 편부모가족이 급증되는 구조 속에 대다수 예비부모들이 기대하는 올바른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필요한 교육

이 필요함을 인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 예비부모들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요인별로 인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밝혀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대학생 예비부모들이 역할수행 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 기술의 내용요소를 다루지 못한 점과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대상과 충분한 시간 및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폭 넓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Y. Jeon, "Program Development for Pre-parent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6, No.3, pp. 73-95, 2002.
- [2] B. N. Le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3, No.1, pp. 133-152, 2003.
- [3] M. R. Jung, H. S. Lee, S. Y. Bae, M. K. Choi, Y. J. Jo, Parental Role and Parenting, Hyunhaksa, 2003.
- [4] M. O. Moon, H. S. Lee, H. N. Min, S. J. Han, and S. A. Han, Pre-parenthood Education, Yangseowon, 2001.
- [5] H. S. Huh, A Study on Perception of Students for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MS Thesis Woosuk University, 2003.
- [6] P. Doetsch, Reducing the Risk for Child Abuse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Parenting Program for Teenage Mothers. Ed. D. Practicum. Nova University, 1990.
- [7] J. K. Hugent,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3, pp. 475-485, 1991.
- [8] E. Weinstien, and E. Rosen, "Decreasing Sex Bias through Education for Parenthood or Prevention of Adolescent Pregnancy: A Developmental Model with Integrative Strategies", Roslyn Heights, Vol.29, pp. 723-732, 1994.
- [9] J. M. Kim, Pre-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ogram Out-comes. Ph. 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4.
- [10] J. S. Kim, S. W. Chung, and M. K. Choi,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5, No.6, pp. 67-78, 1997.
- [11] S. J. Lyou, A Study on Perception for Pre-parenthood Education for a Would-be Bride,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4.
- [12] K. Y. Yoon, H. S. Jeon, S. I. Park, M. S. Lee, S. R. Lee, and S. O. Park, "A Study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16, pp. 57-82, 1998.
- [13] S. J. Koh, H. A. Lee, K. Y. Lee, J. N. Choi, and W. Y. Woo,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Integrated Approach Family Relation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1, No.6, pp. 46-72, 2003.
- [14] H. E. Kang, The Needs of Young Christians for Pre-parent Education. M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2002.
- [15] E. S. Jeong, The Recognition of becoming Parent in College Students, M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2.
- [16] Y. H. Shin, and G. S. Kim, On How Mother's Nurturing Attitude Affects Child's Kinetic Family Drawings, Korean Journal Art Therapy, Vol.11, No.3, 2004.
- [17] A. J. Yoo, and Y. J. Shin, "A Study on Motivations for Parenthood and Parental Role Concepts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1, No.4, pp. 141-155, 1993.

강 영 식(Young-Sik Kang)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박사)
- 2006년 8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1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상담

이 은 정(Eun-Jeong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제주대학교 가정교육전공 (이학석사)
- 2006년 8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전공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수료(가족학전공)

<관심분야>

부부·부모교육, 인성교육,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유러닝(U-Learning), 포트폴리오 평가